

사회

경찰간부 아내 토막살인 의문 투성이

이혼한 前부인도 행방불명

허술한 유치인 관리·공범 가능성도

추석 연휴 직전 광주에서 발생한 '경찰 간부 아내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각종 의문점들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자해로 18년 전 행방불명된 전처(前妻)의 소재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유치인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토막내 아내의 사체를 유기한 후 체포됐다가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진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57)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16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신의 집에서 18년 전 재혼한 아내 백모(4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가 검거 직후 자해를 시도해 뇌사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들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혼한 전 아내도 행방불명=김 경위는 지난 16일 새벽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재혼한 아내의 딸(23)이 '평소 부부싸움을 자주 해 단순가족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사를 의뢰해 지난 19일 여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경위의 전처인 문모씨 역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 1994년 6월 김 경위와 이혼하고 30여일 뒤인 같은해 7월께 주민등록이 작권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주민등록 작권 말소가 당사자가 수년간 행방불명됐을 경우 이뤄진다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말소 경위와 문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범 존재 가능성=김 경위는 지난 19일 시작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김 경위는 자신의 집에서 혈흔 등 증거가 발견된 이후 차츰 범행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시신을 토막낸 뒤 급호동 일대 골목길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말하는 등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공범 존재 가능성이 대두됐다.

또 토막내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한 다음날 시신이 주민에 의해 저수지에서 발견된 이후 자해를 시도한 점 때문에 공범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술한 유치인 관리도 '도마'=김 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휴지를 삼켜 자살을 시도해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뇌사상태다.

김 경위는 이에 앞서 전날 밤 11시 40분께에도 경찰서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유치인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 경위의 차량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데다 이미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사건 직후 서부서에 감찰관을 파견해 유치장 근무자 3명과 팀장, 수사과장 등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경찰청 특공대가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경찰간부 김모(57)씨에 의해 살해된 뒤 유기된 아내(43)의 시신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탈' 많은 추석연휴

광주·전남 교통사고 화재 방화 등 잇따라 7명 숨져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토막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교통사고와 화재, 방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광주북부경찰은 23일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고모(4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별거 전 아내와 살던 광주 서부 모 아파트에 불을 질러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 7월 초에도 아내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도 잇따랐다. 추석인 22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 서구 처평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김모(여·26)씨와 박모(25), 또 다른 김모(25)씨 등 3명이 숨지고, 안모(25)씨가 크게 다쳤다.

같은날 새벽 3시께 강진군 강진읍에서는 가족과 함께 처가를 찾은 정모(54·경북 경산시)씨가 도로를 걸어가다 최모(29)씨가 운전하던 1t 화

물차에 치여 숨졌다.

앞서 21일 오후 6시께 순천시 송광면 왕대마을 앞 도로에서 조모(33·부천시 원미구)씨의 카이런 승용차가 가로수와 충돌해 조씨 등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연휴기간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다. 23일 오전 7시20분께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이모(81)씨의 집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이씨의 아내 박모(79)씨가 숨졌다.

22일 오후 7시55분에는 여수시 교동 모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노래방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같은날 오전 9시35분께에는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모 횡집에서 가스레인지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1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순천시 용수동에서 성묘객 5명이 밭에 쓰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일 밤 11시30분께는 해남군 해남읍 금강골 저수지에서 김모(17·고1)군과 하모(16·중3)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안전사고도 속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25) 김종두



**추석선물 훔친 20대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23일 지인들에게 추석선물을 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양주와 한우세트 등을 훔친 박모(여·28)씨를 절도 혐의로 불검야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2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일방해고 무효

**광주지법 판결**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환)는 23일 유모(여·30)씨 등 전 나주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시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유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유씨 등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편성이 불가능해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각각 지난 2005년 8월과 2007년 2월 나주시 보건소에 특정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나누시는 "근로계약이

끝날 때 유씨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도 받았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사수신 범죄 해마다 증가**

**지난해 광주 77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 로체는 유사수신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범죄는 2007년 486건, 2008년 745건, 2009년 163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3.3배 늘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모두 235건이 발생해 741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15건, 대구 149건, 경기 128건, 광주 77건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경 이상 경찰간부 37%가 영남출신

**경찰대 출신 35% 차지**

총경 이상 경찰 간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신대학 별로는 경찰대가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출신대학별로는 경찰대 출신이 217명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어 동국대 79명(12.8%), 한양대 51명(8.3%), 영남대 18명, 전남대 17명, 동아대 13명, 경남대·충남대 각각 11명, 고려대·조선대 각각 10명 순이었다.

또 출신고교 별로는 경정고시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고 13명, 전주 12명, 마산고 11명, 대구고·계성고·목포고 각각 9명, 조선대사대부고·광주고·청주고·충남고 각각 8명으로 집계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시험 탈락 30대 목 매**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떨어진 뒤 괴로워하던 3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가 추석 당일 가족들에 발견됐다.

지난 22일 오후 1시께 배모(32)씨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겨있는 것을 여동생(2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여동생은 경찰에서 "큰 오빠가 장흥 시골집에 내려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숨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희기자 kimho@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 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